



Singapore

자카르타지사

싱가포르에 부는 고구마 열풍

다이어트식품으로 각광받는 슈퍼 푸드, 고구마

싱가포르의 여성지 <우먼스 위클리>는 지난 호에서 슈퍼 푸드이자 다이어트 식품인 고구마가 최근 들어 소비자들에게 각광받고 있다는 것을 기사화하고 다양한 고구마 식용방법을 소개한 바 있다. 언론에서 다룰 만큼 싱가포르에서는 고구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를 마케팅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일본 대형 식료품마트 '돈돈돈키'는 2017년 싱가포르에 아시아 첫 매장을 오픈한 이후 2019년 현재 싱가포르 전역에 4개 매장을 운영하며 2년째 군고구마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

매일 갓 구워지는 군고구마의 향은 '돈돈돈키'의 트레이드 마크로 자리잡고 있다. 매장 입구에서부터 퍼지는 고소하고 달콤한 향이 소비자들의 입맛을 자극하는 데다 가격까지 비교적 저렴해 이 매장에서 군고구마를 사려는 소비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갓 구운 군고구마 향으로 고객 끄는 '돈돈돈키'

'돈돈돈키'의 군고구마는 모두 일본 '돈돈돈키'에서 직접 생산 관리하는 베니하루카 종으로 당도가 매우 높아 꿀맛이 나는 제품이다. 이밖에도 '돈돈돈키'에서는 고구마 라떼를 선보이고 있으며 매장 신선코너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에 일본산 생고구마를 판매 중이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한국산 고구마로 군고구마와 군고구마 라떼를 만들어 파는 한인상점도 싱가포르의 쇼핑몰에 하나 둘 생겨나고 있다. 비보시티 몰에 오픈한 한인상점 '구마구마'의 관계자는 "싱가포르 고구마 시장은 매우 긍정적이다. 앞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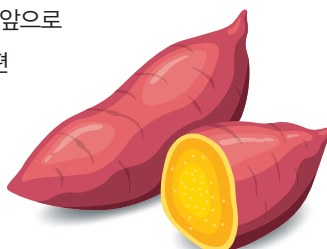
매장을 더 확장하고 편

의점에서도 군고구

마를 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고 밝혔다.



| 돈돈돈키의 군고구마 라떼, 군고구마 |



다양한 국가로부터 수입해 공급안정 꾀하다

식료품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2018년 기준 9,624톤의 고구마를 수입했다. 식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에서는 수입원을 다양화하는 방법으로 공급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고구마시장에서 주요 수입국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일본, 호주 등이며 한국산 고구마의 수입도 2018년에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산 고구마의 경우 10월에 첫 출하가 되나 연중 수출이 가능하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산에 비해 품질이 좋은 데다 일본산에 비해 가격

이 저렴해 점차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한국 고구마 수입은 전년 대비 4배 이상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현지 슈퍼마켓이나 온라인시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한국 고구마의 성장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고구마 싱가포르 수입물량 통계 |

(단위: 톤)

수입국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계	7,428	8,281	9,165	9,341	9,257	9,624
베트남	3,910	4,509	4,658	4,467	3,934	3,460
말레이시아	2,366	2,275	2,334	2,556	2,574	2,398
인도네시아	788	1,030	1,242	1,177	1,440	1,976
일본	101	119	201	252	345	917
호주	97	120	176	404	480	414
한국	1	1	2	1	4	



Key Point

가격경쟁력과 고품질이
장점인 한국 고구마

• 싱가포르에서는 최근 고구마의 인기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구마를 테마로 삼은 다양한 식품 매장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에 가격 경쟁력과 고품질이라는 장점이 더해져 한국 고구마를 이용한 메뉴를 판매하는 매장들도 생겨나면서 한국 고구마 수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지 트렌드에 맞는 메뉴개발 및 홍보를 통해 싱가포르 수출에 활력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돈돈돈키 본점의 군고구마 구매 인파 모습 |



| 싱가포르 쇼핑몰에 입점한 한인상점 구마구마 매장 |



출처 : sethlui.com, eatbook.sg, www.womensweekly.com.sg, 돈키호테 홈페이지